



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학교생활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와의 전쟁이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코로나 19의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시설마다 편차 없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예방접종률 외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사망자수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사망자 급증과 병상부족 등을 비롯한 악화를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지난 11월 초부터 1차 개편이 시작되어 4주+2주간격으로 예방접종완료율, 중환자실과 입원병상의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을 고려해 개편이 이루어졌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은 사적 모임 제한 해제를 목적으로 이 순서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을 4인으로 제한했다가 이후 늘어나는 확진자에 18시 이전 4인, 이후 2인으로 제한을 두었다. 이 인원제한은 처음에는 접종완료자에게 주어지는 백신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후에는 적용되어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는 인원제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1~2차 개편까지는 접종에 관계하지 않고 총 10명까지 사적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3차 개편까지 진행될 경우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 이러한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사라진 축제, MT, 개강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 행사들의 진행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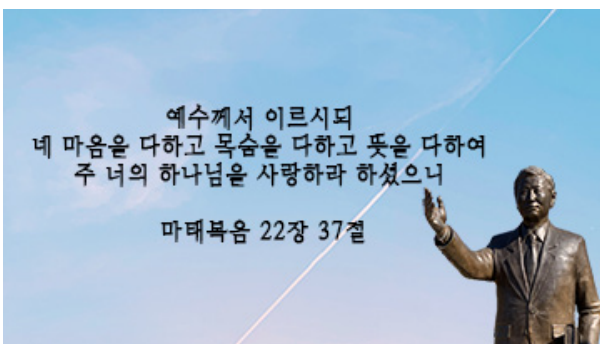
우리 대학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강의와 대면 강의를 결합한 형태인 블렌디드 러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코로나 확진자

로 인해 계획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많은 과의 학생들이 학교를 일주일 한두 번 나오는 것이 고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볼 수 있는 기기와 함께라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과 봤던 강의를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었지만 단점도 적지 않게 존재했다.


비대면 강의는 우리 대학처럼 실습이 주로 진행되는 전문대학에서 진행할 경우에 기존 실습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에 비해서 높은 학습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는 전면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간 우리 신안산대학교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내년부터는 코로나19 이전의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장 김평은



우리 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학보사 페이스북 페이지 문의

saupress@naver.com

INDEX

- ▶ 아프리카에서 온 마지막 편지 2면
- ▶ 존버 3면
- ▶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식[美食]이야기③ 4면
- ▶ 성공적으로 개최된 산업디자인과 졸업전시회 /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정된 세법 5면
- ▶ 2022학년도 우리대학 입시안내 6면
- ▶ 방송아카데미, 꿈의 첫 걸음을 걷다 7면

- ▶ 교수님을 만나다 - 세 교수님과의 이야기 8-9면
- ▶ 미국의 반독점 물결 10면
- ▶ 새롭게 뒤바뀐 세상, 메타버스 11면
- ▶ 세계로 뻗어가는 신안산대학교 - 베트남 어학생편 12면
- ▶ 2021 AIoT 국제전시회 소감문 / 만평 13면
- ▶ 커리어라운지 14면
- ▶ 우리의 새로운 기준, "With Corona" 15면
- ▶ 입시요강 16면

아프리카에서 온 마지막 편지



이규현

이디오피아 선교사
이디오피아장로교신학대학 교수



▲ 6.25 참전용사 분들과 아프리카 유니온 빌딩에서

이번이 5회 원고로서 신안산대학교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번은 제가 선교사로 소명을 받은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 30년 전 1989년 겨울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교회 주변에 있는 사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저는 세 딸이 있는데, 당시에 막내 딸이 4살이었으며 그 아이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흉내 내기를 좋아하였으며 가끔 숟갈이나 컵을 입술에 대고 흥얼거렸습니다.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귀가한 그 날 저녁에도 전기선의 끝부분을 손에 들고 입에 대면서 설교하는 것을 흉내 내기 시작하였으며, 제 아내는 전기코드를 사용할 일이 있어서 코드를 벽의 콘센트에 꽂고 돌아서서 아이에게 가까이 가려는 순간 아이의 몸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돌아서서 코드를 콘센트에서 뽑아냈습니다. 몇 초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이는 눈동자가 풀려있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전기코드는 한 쪽은 슛놈, 한 쪽은 암놈으로 되어있는데 이 코드는 양쪽 모두가 슛놈으로 되어있는 희한한 코드로서 전기를 끄는 순간 아이의 입에 찰싹 달라 붙어버려 전기쇼크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저와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 목사를 불러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택 주변에 있는 중간급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담당 의사 분에게 전기쇼크 사고라고 설명하자 그 분은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친구 목사의 차로 영등포에서 가까운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바로 입원을 시키라고 하여 입원을 시킨 후에야 제 정신으로 돌아왔을 만큼 당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입원한 날은 아이가 외형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다음 날부터 서서히 왼쪽 아래 입술 절반 정도의 피부가 검게 변하기 시작했으며 입술이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커멓게 변색되더니 동그랗게 입술이 말려들어 갔으며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그 부분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왼쪽 아래 입술 절반이 없어지자 그 부분에서 침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 장로회신학교 졸업식 사진

없다면 퇴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분이 몇 가지 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이 아이는 전기 쇼크로서 전기가 입술에서 터졌기에 살아났으며 심장에서 터졌으면 즉사했을 것이다. 둘째, 화상으로 말하면 3도 화상으로서 타버린 피부는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으며 다른 부분의 피부라면 이식을 시도할 수 있지만 입술과 향문은 특수한 피부라서 재생도 안 되며 이식도 할 수 없고 평생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셋째, 이 아이의 케이스는 특수한 경우라서 나중에 학계에 발표하려고 한다. 대략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의 변한 입술과 침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는 여자 아이인데 어찌 평생 동안 아래 입술이 없이 흉한 얼굴로 침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부분의 피부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사람 앞에서 들어낼 수밖에 없는 얼굴일까? 지금은 어려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지만 아이가 성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는 그 심정이 어떨까? 저는 심장이 터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보다는 얼굴이 변한 모습에 좌절하는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면서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했다). 이 말이 뇌리에 계속 떠오르면서 동시에 사람이 치료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문하면서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 시절에 해외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는데 이제 이 아이의 입술을 고쳐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제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100 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가운데 유난히 (자라나게) 하신다는 말씀에 제가 꽂힌 것입니다. 분명히 의사 선생님은, 평생 자라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셨으며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면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며칠 동안 준비 기도를 마치고 100 동안의 특별 새벽기도에 돌입했습니다.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새벽 설교를 담당하든지 안하든지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고린도 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기도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아이의 타버려 없어진 입술을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고 있는 아이의 입술에 제 검지손가락을 대고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용하지만 간곡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면 타버려 없어진 입술 부분에 딱 들어갔습니다. 자로 재어봤을 때 가로 세로 각각 1센티미터가 없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없어진 입술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해주시면 제가 약속드린 대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시 자라난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하는 입술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열흘, 이십 일이 지나도 아이의 입술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100 일을 작정했으니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90 일이 되어갈 무렵, 그 날도 제 손가락을 아이의 입술에 대고 기도한 후에 손을 떼고 아이의 입술을 보는 순간, 아주 미세하고 약간은 희고 노르스름한 색으로 보이는 좁쌀 같은 아니 좁쌀보다도 더욱 작은 것들이 돌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하고 신기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무엇 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뭔 일을 행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도 기도한 후에 손을 떼보면 조금 더 자라났고 그 다음 날도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새로운 살이 돌아나는 것을 제 눈으로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세포가 이렇게 자라나는구나) 라는 희한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100 일이 끝나가면서 아이의 왼쪽 타버린 입술 절반이 다시 살아나온 것입니다. 원래의 태어난 모습 그대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한 분이 홀로 받으소서!

지금은 옛 입술과 새 입술 사이에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약속하신대로 타서 없어진 입술이 다시 (자라나게)하신 것이며, 기도한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다음해인 1990년 하나님께 약속드린 대로 장로교단 총회가 주관하는 선교사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첫 번째 선교지인 브라질로 파송 받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재파송을 받고 이곳에서 장로회 신학대학 학장(Dean)으로서, 장로교회 순회 설교자로서, 그리고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분들과 후손들을 위해 15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막내딸도 서울 명일동에 소재한 교회에서 청년부 찬양팀 팀장으로서 많은 청년들 앞에서 고침 받은 입술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존버

황대석 목사
예썸교회

요즘 자주 듣게 되고 쓰게 되는 말들 중에 ‘벼락거지’라는 표현이 있다.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도 부동산과 주식 등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열심히 일하며 꾸준히 월급을 모아도 재테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하고, 자기만 뒤쳐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하는 말이다.

필자 역시 최근 집 문제로 인해 속상할 때가 제법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셋값이 2년 전 계약할 때보다 너무 올라서, 이제는 그 가격으로는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구해서 셋값을 올려주든지,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저렴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치를 부리거나 돈을 막 쓴 적도 없지만 계속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기분, 즉 벼락거지가 된 기분을 필자 역시 만끽(?)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소식들이 있다. 엄청나게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연예인들 소식이나, 나보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운 좋게 대박이 나서 지금은 엄청 잘나가고 있다는 지인들 소식은, 현재를 나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잖은 상실감을 준다. “굳이 이 공부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 “굳이 이 직장에 계속 다녀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도 없고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도 없어서, 그저 지금의 삶을 계속 유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가끔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안을 삼기도 한다. “그래,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잘하자” 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도 막연한 꿈은 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보다는 “언젠가는 나도 대박 날거야!!!” 라는 기대심리가 있다.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나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막연하게 버티는 태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존버”라는 말도 있다. 신앙칼럼이기에 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아마 다들 아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존버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가 나에게도 허락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존버하다가 대박 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씨를 뿌렸다가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을 남긴 한 농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내용의 이야기다.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뿌리게 된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렸던 씨앗은 수확에 실패하지만, ‘좋은 땅’에 뿌렸던 씨앗은 대박을 치게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소개되는 네 가지 종류의 땅은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이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제대로 심겨지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한다.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씨앗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이는 신앙적으로 보면 말씀 자체를 듣지 않는 수준이다. 채플 시간에 계속 잠만 잔다거나, 딴 생각만 한다거나,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길가라는 땅의 수준이다.

다음으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일단 심겨지기는 했다. 그러니까 길가보다는 훨씬 낫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더 이상 크게 자라지 못하는 상태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상태에 속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 그리고 말씀 듣고 “아,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

만 그걸로 끝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수준이다.

끝으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참 잘 심겨졌다. 뿌리 역시 제대로 박혔고, 그렇기에 자라기도 잘 자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열매가 없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정상적으로 잘 자라지만, 정작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시떨기 상태에 속할 거라고 생각한다. 말씀 잘 듣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다.

세상과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 아파만하는 단계가 바로 가시떨기 상태이다. 공부와 예배 사이에서 갈등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두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항상 세상을 선택한다. 안타깝게도 잘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열매는 못 맺고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땅은 이런 부족한 땅들과는 전혀 다르다. 씨앗이 잘 심겨졌다. 그리고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랐다.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을 잘 듣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차근차근 더 좋은 신앙인으로 잘 성장해서 결국에는 신앙인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필자에게는 항상 작은 의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도대체 이 농부는 왜 처음부터 좋은 땅에 뿌리지 않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다 뿌려서 소중한 씨앗을 낭비했던 것일까?!” 하는 것이다.

시골에서 자랐기에 필자는 농민들이 씨앗을, 특히 파종할 때 쓰는 종자 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더 의문이 컸다. “왜 농부는 그토록 소중한 종자 씨를 좋지 않은 땅에다 낭비했을까?!” 그리고 그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처 깨닫고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농부가 왜 좋지 않은 땅에도 씨앗을 뿌렸는지에 대한 의문은 금세 풀렸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파종할 때, 즉 씨앗을 뿌릴 때 먼저 쟁기로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흙으로 덮는다. 먼저 좋은 땅을 만든 후에 파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다. 유대인들은 먼저 씨앗을 뿌린 후에 쟁기로 밭을 갈아서 덮는다. 땅이 척박한 이스라엘에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도 가릴 처지가 아니고, 그런 좋지 않은 땅이라 하더라도 혹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말 그대로 존버하는 것이다.

이제 농부가 왜 좋지 않은 땅에도 씨앗을 뿌렸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농사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입장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농부는 알고 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농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네 종류의 땅들이 시간 순서로 배열된 것은 아니겠지만, 시간 순으로 씨앗이 뿌려졌다고 생각해보자. 농부는 이미 실패도 맛본 사람이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에 걸쳐 실패했다. 그의 소중한 씨앗 중 4분의 1이 길가에 뿌려져서 망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씨앗을 뿌렸지만 또 4분의 1의 씨앗은 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났지만 곧 말라버렸다. 그리고 또 4분의 1의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잘 자랐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결국 그는 가지고 있던 소중한 씨앗 중 무려 4분의 3이나 소진하였고, 이제 4분의 1의 씨앗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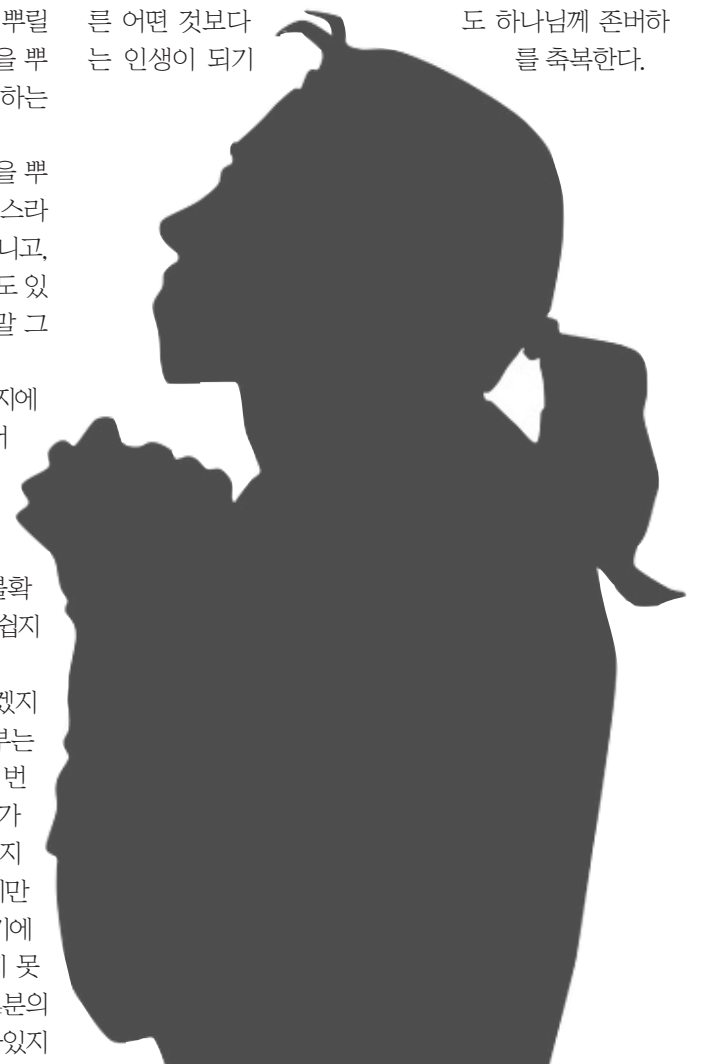
필자가 만약 이 농부의 입장이라면 더 이상 씨앗을 뿌리고 싶지 않을 것 같다. 남아 있는 4분의 1의 씨앗은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차라리 그 씨앗으로 음식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 남은 씨앗이라도 더 늦기 전에 누군가에게 처분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는 얼마 되지 않은 남은 씨앗 전부를 땅에 뿌린다. 어쩌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뿌린 씨앗은 결국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그가 처음 갖고 있던 씨앗을 완전히 회복하고도 남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지금 당장에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이제 2021년 한해도 4분의 3이 지나가고, 4분의 1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시점이다. 올 한해는 어땠는지 각자 돌아보면 좋겠다. 길가였을 수도 있고, 돌밭이었을 수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한해였을 수도 있다. 혹시 올해 뿌린 씨앗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 돌아보자. 과연 그 씨앗은 뿌리가 잘 박히고, 잘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었는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참 힘들다. 씨를 엄청나게 뿌렸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포기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조금 늦더라도, 내가 뿌린 곳에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계속 씨를 뿌리는 그대들이 되기를 응원한다. 그러는 사이에 잃는 것도 있겠지만 얻는 것도 분명 있을 것이며, 또 언젠가는 좋은 땅을 만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때도 있을 것이다. 비록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어지더라도 한 번 더 용기 내어 울며 씨앗을 뿌리는 그대들의 대학생활이 되기를, 그래서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존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한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식[美食]이야기③



이진택 교수
호텔조리과

미식여행 세 번째 이야기 에스닉 푸드(ethnic food) : 태국 인류의 음식문화는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 중에서 교통 및 운송의 발전은 지역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식품재료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근래 들어 특히 각광받고 있는 음식이 에스닉 푸드이다. 에스닉 푸드는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제3세계의 고유한 음식이나 혹은 동남아 음식을 일컫는다. 채소를 비롯해 각종 허브와 향신료 등 저칼로리 재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Well-being 음식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에스닉 푸드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태국음식이다. 태국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족 간이나 지인 간 가장 많이 찾는 관광국의 하나이면서 태국을 여행하고 난 후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낮은 나라로 유명하다. 그만큼 태국음식은 이국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기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그 어떤 나라의 음식보다 잘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태국의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열대몬순기후로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풍부해서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유명하며 지리적으로는 인도와 중국사이의 동남아시아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주민의 95%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식민화되지 않고 독립된 국가로서의 쌀밥과 반찬으로 된 식사구성에 육류보다는 생선을 많이 이용하며 독특한 맛과 향을 내는 칠리고추나, 고수 같은 향신료를 고루 사용한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식재료



1. 레몬그라스 : 레몬 향이 나는 허브로 뽕양공의 주요 재료이다.
2. 갈렌갈 : 생강의 일종으로 커리와 찜요리에 필수재료이다.
3. 강황 : 커리에 사용되는 황색의 향신료
- 4, 5. 샬롯 : 양파의 한 종류
- 6, 9. 새논고추 : 한국의 청양고추 보다 7배 맵다
- 7, 8. 카피라임 잎 : 고기나 생선요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향신료로서 동남아 음식의 향을 대표한다.

태국의 북부지역은 산악지대로 찰밥이 주식으로 미얀마와 라오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맵고 짭맛이 주류이고 생선보다는 육류요리가 발달되었다. 북동부지역은 농작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으로 밭농사와 축산이 성행하였으며, 중부지역은 방콕을 중심으로 멍쌀을 주식으로 한다. 남부지역은 바다와 인접해 어패류의 이용이 많고 이슬람교가 많아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남프라' 라고 하는 어장을 많이 사용한다.

태국의 지역음식



커리의 나라 태국

전 세계 태국 레스토랑에서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메뉴가 '커리'이다. 커리는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음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각 나라간 전쟁과 이주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각 지역의 기후적 특성에 맞게 변화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커리는 강황이 주재료로서 노란색의 커리로 대표되며 인도나 서남아시아의 커리가람마살라라는 다양한 종류의 허브와 향신료 등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태국의 커리는 고추와 향신료, 허브 등의 재료를 한꺼번에 뺏아서 커리를 만든다. 다시 말해 서남아시아의 커리는 주로 향신료를 이용해서 만든 분말형태의 커리라면 태국의 커리는 허브와 향신료가

합쳐진 페이스트 형태의 커리로 촉촉한 장류와 비슷한 형태의 커리를 만들어 사용한다. 즉 신선한 허브와 건재료의 황금비율에 의해 깊은 맛을 지니고 있다. 또한 태국 커리에서 부드러운 맛과 농도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코코넛 밀크다. 태국 커리와 함께 사용되는 코코넛밀크는 부드러운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특히 튀김요리나 구이 요리에 잘 어울린다. 오늘의 태국요리 미식여행에서는 이러한 태국의 커리와 코코넛밀크를 이용해서 만든 뿌 팟 봉커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뿌 팟 봉커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식시장에서도 고객의 선호도면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뉴로서 태국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뿌(게) 팟(볶다) 봉 커리

뿌 팟 봉 커리는 탈피한 꽃게를 먹기 좋은 크기로 등분하여 튀김유에 튀긴 후 코코넛 밀크와 커리를 이용한 부드러우면서 바삭한 식감의 요리이다.



[재료] 소프트 크랩 3마리, 어슷 썰기 한 셀러리30g, 채 썬 양파20g, 1/4로 자른 방울토마토5개, 녹말가루5큰 술, 튀김유

[소스] 코코넛밀크170ml, 달걀1개, 커리파우더(매운맛)1큰술, 설탕1큰술, 굴소스1작은술, 고추기름3큰술

[만드는 법]

1. 소프트 크랩은 해동 후 물기를 제거하고, 가위로 4등분하여 녹말가루를 묻혀 170℃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둔다.
2. 열이 오른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토마토, 양파, 셀러리를 넣고 볶아준다
3. 2에 코코넛 밀크를 넣고 끓는 시점에 계란을 터트려 넣어 준다.
4. 위의 과정이 끝나면 불을 끄고 커리 파우더와 설탕, 굴 소스, 고추기름을 넣어준다.
5. 4의 양념이 잘 엉기면 접시에 1의 튀긴 소프트 크랩을 담고 4의 소스를 얹어 낸다.

Tip

- ◆ 소프트 크랩의 물기를 잘 제거해야 기름이 튀지 않는다.
- ◆ 소프트 크랩이란?

게는 성장하면서 딱딱한 껍질을 탈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탈피한 직후 껍질이 다시 딱딱해지는데는 6시간 정도가 걸린다. 이때 껍질이 다시 딱딱해지기 전에 게를 손질한 후 냉동 상태로 유통하여 게의 맛은 살리면서 부드러운 식감의 식품재료로 사용한다.

성공적으로 개최된 산업디자인과 졸업작품 전시회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진행이 어려웠던 산업디자인과의 졸업작품 전시회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졸업작품 전시회의 시작을 알리는 리본 커팅식에는 산업디자인과 학회장, 학생처장 이인수 학과장, 총장, 정진숙 교수, 김호 교수, 박상익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은 2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여 졸업작품을 준비하였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졸업작품을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산업디자인과의 졸업작품 전시회를 시작으로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었던 학교생활이 차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장 김평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정된 세법

세금은 우리 삶 속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세법, 부동산세, 증여세, 소득세 라는 단어는 웬지 모르게 가깝지 않은 이야기로 느껴진다. 그 이유는 우리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재화를 구매할 때, 우리는 구입처에서 표시된 가격으로 단순히 계산하지만 사실 그 안에도 세금이 숨겨져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금액이 재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더욱이 코로나 이후로 급변한 세상에 발맞춰 세금 역시 많은 변화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어떤 점들이 개정되었고 어떤 법이 추가적으로 생겨났는지 알아보며 세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해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결제 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 기준	현행	개정안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250만원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조정 관련 법안 국회 심의 중

▲조선일보 2020.11.03 안중현 기자

2020년의 경우 “코로나”라는 변고가 생긴 이후,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이 때문에 생긴 생계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세법

을 통한 대책을 강구(講究)했다.

첫째, 자영업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법개정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 간이과세자의 수가 약23만명으로 증대되어 혜택 받을 수 있는 수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1인당 대략 59만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존에는 연간 3000만원 미만 일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분에 한해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그 납부의무를 면제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연매출	과세방법	부가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 세액공제
2020년까지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면제	없음	제외	제외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납부	없음	제외	제외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	납부	있음	대상	적용
2021년부터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면제	없음	제외	제외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면제	없음	제외	제외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납부	있음	대상	제외

그래픽·변혜준 기자 jun009@

▲TAX WATCH <<확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간이과세자 뿐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 가치세 감면이 있었다. 부가세를 제외한 연매출이 8000만원(과세 기간별 4000만원)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주었다. 부가가치세를 넘어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관련해서도 일정 소기업에 한해서는 60%감면, 소기업 외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감면해주었다.

둘째, 사업을 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 전기의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늘어났었다 이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었다. 소비가 되는 돈이 줄어 그만큼의 소비를 촉진을 부추기는 정부의 취지이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7천만원 이하라면 현금, 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도 전통시장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기존 40% 공제에서 80%공제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등 이용분은 기존 30%공제에서 60%공제로, 그 외의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현금 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공제에서 60%공제로 각각 2배로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었다.

셋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구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는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를 적용했지만, 2020년 3월부터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50%에서 100%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2021, 올해는 어떻게 세금이 산정되었을까?

기업에 측면에서 개정된 세법을 알아보자면,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점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만 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2) 소액 광고선전비의 기준 금액은 특정인 대상 연간 3만 원, 개당 1만 원 이하였는데, 개정 올해 세법은 연간 5만원 개당 3만 원 이하로 금액이 더욱 올라갔다.

2020과 비교했을 때, 2020의 첫 번째 개정 사항인 간이과세에 관련해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서 21년부터는 8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되었다. 또 간이과세자 업종별로도 부가가치율이 조정되었다.

생산직 등 근로자에게는 어떤 세법이 적용이 되었는지도 아래에 서술해보자면,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서 월 정액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로 통장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시대에 발맞춰 세법은 늘 변화한다. 변화무쌍한 현 시대를 반영하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 시점에서 어떤 소비에 관대해야 하고, 어떤 소비를 어떤 방식으로 줄여 절세해야 하는지 세법을 근간으로 알 수 있는 해안을 기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자 최보은

2022학년도 우리대학 입시안내



▲신안산대학교 계절별 풍경 (출처 : 신안산대학교 홈페이지 이미지 갤러리)

2022학년도 우리 대학을 포함한 대학 수시가 9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전국의 입시생들은 각자에게 맞는 성적과 합격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시를 지원할 것이다. 전형요강이 비슷한 대학이라면 장학금, 학교의 환경, 취업지원현황 등과 같은 것을 참고하면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학은 2022년 새롭게 전공학과들이 생길 예정이다. 거기에는 연예매니지먼트과, 소방안전관리과, 실용댄스과, 반려동물과, 스마트패키징과, 스포츠지도과, 웹툰출판미디어과가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미래에 유망한 직업들을 생각하여 선택한 결과이다. 수시1차 모집전형에는 일반전형, 특별전형이 있다.

특별전형에는 자기추천자전형(면접위주/교과30%+면접70%), 자격증소지자전형(서류위주/교과30%+서류70%), 체육특기자전형(서류위주/학생부30%+서류70%), 지역우선자전형(교과위주/교과100%)이 있으니 수험생들의 상황에 맞춰서 지원하면 된다. 복수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수시6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학과 간 복수지원은 2개 학과까지 가능하며, 전형 간 복수지원은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2021년 11월에 공지할 예정이며 수시 및 정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1599-2000에 전화하면 된다.

자격증소지자전형은 온라인 제출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 카카오 채널 '신안산대학교 입학팀'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 제출은 [154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조지동), 신안산대학교 입시담당자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과분야에서는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 중 최우수 1개학기의 전 과목 교과성적 평균등급으로 반영되며, 서류로는 우선반영 자격증 65점+추가반영 자격증 5점을 반영한다. 또한, 기타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는 '입시 공정관리위원회' 심의 후 인정한다.

자기추천자전형의 면접일시는 수시1차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에 진행하였다. 수시2차는 2021년 12월 3일이며, 상세일정은 원서접수 마감 후 다음날 안내할 예정이다. 면접장소는 목양관(광덕홀)에서 고사 1시간 전 접수 후 학과별 면접장으로 이동하면 된다. 학과별 출제문항은 신안산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수험표가 있고 복장은 교복 또는 단정한 사복을 입어야 한다.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초지역에서 대학까지(3분 이내) 운행하며, 면접 종료 후에도 대학셔틀버스정류장(본관옆)에서 초지역까지 운행한다.

일반전형 실기고사는 일반전형인 스포츠지도과, 실용

댄스과, 공연음악과 원서접수자만 해당한다. 수시1차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에 진행하였고 수시2차 2021년 12월 3일, 정시 2022년 1월 21일로 진행되며, 상세일정은 원서접수 마감 후 다음날 안내할 예정이다. 실기장소는 목양관(광덕홀)에서 고사 1시간 전 접수 후 학과별 실기장소로 이동하면 된다. 스포츠지도과의 실기항목은 제자리멀리뛰기(cm), 메디신볼 던지기(m), 10m 왕복달리기(sec)가 있다. 실용댄스과는 자유 개인안무 2분 이내(음원 USB 준비)를 보여줘야 하며, 창의력, 독창성, 준비성, 표현력과 인성 및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공연음악과의 평가분야로는 보컬, 작곡, 피아노,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산대학교 홈페이지의 2022학년도 일반전형 실기고사 주제 및 평가방법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입학홈페이지의 Q&A/FAQ에서 수시, 정시, 취업, 교통편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년도 입시결과를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속의 입시로 인해 학생도 학교도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시는 시작되었고, 곧 수능도 치르게 될 것이다. 부디 모든 수험생이 좋은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루길 바란다.

부편집장 최지인



방송아카데미, 꿈의 첫 걸음을 걷다

방송아카데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멀티미디어콘텐츠과는 2015년부터 재학생 대상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온/오프라인 미디어 관련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다양한 회사로 취업을 나가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본 과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은 누구나 방송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본 과에 재학 중이지는 않지만 교내 재학 중이며 졸업 예정인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방송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회사에서 마음껏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방송아카데미를 통해 매해 많은 학생들이 SBS, KBS, MBC, 연합뉴스, YTN, TV조선과 같은 다양한 방송사로 취업을 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멀티미디어콘텐츠과 2학년 학생들이 방송아카데미를 통해 취업을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 올해 8월부터 TV조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서연과 이야기를 나눌 수 기회가 생겼다.



▲ TV조선 전경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신안산대학교 멀티미디어콘텐츠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지서연입니다.

Q. TV조선 <이것이 정치이다>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A. 예능 쪽보다 시사 쪽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고 스튜디오를 이용하거나 생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Q.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것이 정치이다>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프로그램은 정치 이슈에 집중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지향했던 [이것이 정치이다]에 사건·사고, 문화·연예, 경제·속보 등 사회 이슈도 다루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시사쇼 프로그램입니다. 정치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재밌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Q. 그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건가?

A. AD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고 방송하기 전 필요한 영상과 사진들을 다운로드하고 방송에 사용할 CG를 의뢰하고 간단한 CG들은 직접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정실에서 방송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다 끝난 후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보기를 올립니다.

Q. 그럼 근무하는 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가?

A. 오전 11시에 하는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조금 일찍 출근하여 시청물을 프린트하고 시간대별로 정리를 합니다. 회의하기 전 회의실 자리에 두고 오전 11시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40~50분 정도의 회의를 진행한 후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사용할 CG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영상과 사진을 다운로드하고 PD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처리합니다. PD님께서 만들어야 될 CG 내용을 주시면 디자인실에 의뢰를 하고 만들 수 있는 CG는 직접 만들어 준비합니다. 5시쯤 방송을 하기 위해 부조정실에 가서 세팅을 하고 방송을 운행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다시보기를 수정을 하여 올립니다. 다시보기 수정 작업은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입사한지 아직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보람차거나 힘든 일들은 없었는가?

A. 보람чал 때는 방송 중에 아무런 사고나 실수 없이 잘 끝난 날 그리고 시청률이 잘 나온 날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실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끝내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바쁜 날에는 힘들 때도 있지만 배우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생겨 재밌고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Q. 근무하면서 배우거나 깨달은 점이 있는가?

A. 확실히 실전에서 직접 경험을 해봐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의 체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방송을 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게 되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내년에 방송아카데미에 참여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 크겠지만 많이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면접 볼 때 많이 떨리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처음보다 많이 늘게 되고 긴장을 덜하게 됩니다. 저도 총 6번의 면접을 보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아카데미를 통해 알게 된 크랙앤리버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찾아봐주시고 연락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전에서 배우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 조기 취업을 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경력을 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조기 취업을 추천드립니다.



▲ <이것이 정치이다> 스튜디오

지서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송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배워갈 수 있었다. 지서연의 말처럼 처음 도전하는 일은 많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방송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각 학과에서 추천해주는 취업처에 도전한다면 자신들의 원하는 꿈에 한발짝 걸어가지 않을까 싶다.

위 학생이 방송아카데미를 통해 자신의 꿈에 한발짝 나아갔듯이 멀티미디어콘텐츠과에 재학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본교에 재학중이고 방송국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졸업을 앞둔 학생이라면 누구나 방송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다. 방송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싶은 타 학과 학생들이라면 방송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멀티미디어콘텐츠과 안동찬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면 된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방송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찾기를 바란다.

정기자 김주리

방송아카데미에 대해



멀티미디어콘텐츠과는 1999년 인터넷정보과로 시작하여 2000년대 IT 전성기와 함께 순항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IT 산업의 침체로 2011년 인터넷정보과에서 멀티미디어콘텐츠과로 과명을 변경하였다. 과명 변경과 함께 커리큘럼도 대폭 수정하게 되었고, 현재 멀티미디어콘텐츠과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멀티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2015년부터 재학생 대상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온/오프라인 미디어 관련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최근 COVID-19로 비대면, 온라인, 재택근무, 메타버스 등의 키워드가 화두가 되면서 미디어 산업 분야의 급성장은 긍정적인 부분이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인력수요와 사회 진출의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콘텐츠과 교수 안동찬

교수님을 만나다 - 세 교수님과의 이야기



▲출처 : 신안산대학교 입학홍보처 제공

신안산대학교는 다양한 전문 기술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2년 반려동물과, 소방안전관리과, 스마트패키징과, 스포츠지도과, 실용댄스과, 연예매니지먼트과 등 여러 학과가 새롭게 신설된다. 그중 연예매니지먼트과에는 옷차사와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여러 유행어들로 우리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던 개그우먼 이수지 교수가 초빙되었고, 실용댄스과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의 안무 감독을 맡은 강옥순 교수가 학과장으로 부임한다. 기존에 있던 공연음악과에서도 국민 애창곡 '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 겸 배우이자 작곡가인 김원준 교수가 새로운 전임교수로 강단에 선다.

실용댄스과 강옥순 교수



▲출처 : 신안산대학교 입학홍보처 제공

강옥순 교수는 2007년 뮤지컬대상 시상식 '대장금' 안무 노미네이트 수상을 시작으로 2008년 뮤지컬 어워즈 '젊음의 행진' 안무 노미네이트, 2010년 뮤지컬대상 시상식 '금발이 너무해' 안무 노미네이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폐막 안무 감독, 2018 평창 패럴림픽 DMZ 아트페스타, 2019년 평창동계올림픽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2020 KBS 특집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쇼 안무 감독을 맡는 등 엄청난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는 교수이다.

실용댄스과는 공연예술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인격

및 자세를 배우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준비된 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로 K-POP 댄스, 일반 댄스, 힙합, 팝핀, 비보잉, 왁킹, 재즈, 현대무용 등 댄서로서 필요한 다양한 전문실기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직업으로는 전문 댄서, 안무가, 댄스 강사, 기획사 트레이너, 댄스 디렉터 등이 있으며, 방송국, 연예기획사, 댄스 학원, 문화센터 및 스포츠 센터, 구보댄스컴퍼니, 소백댄스씨어터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Q. 본교에 부임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 신안산대학교 실용댄스 신설과의 학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 찹니다. 신설과 이기에 책임감이라는 무거움도 있지만 늘 그렇듯이 즐거운 작업이며, 학생들과 함께 꿈을 향한 신나는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Q. 이번 학기 담당하시는 과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K-컬처 융복합 제작 실습, 재즈 댄스, 펑키 재즈, 뮤지컬 댄스, 무용 미학, 안무법 등등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K-컬처 융복합 제작 실습을 통해 공과대학에서 새롭게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문화콘텐츠 사학의 명문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신안산대학교에서 엔터테이너를 발굴 육성하여, K-컬처라는 시대에 발맞춰 각 장르에 맞는 커버 댄스와 뮤지컬 댄스 등을 통해 엔터테이너 양성 제작 실습입니다.

안무법은 1,2학년에는 없지만 3,4학년 심화과정 시에 방송안무는 물론 뮤지컬 안무, 테마파크 안무, 메가 이벤

트인 대형 그라운드에서의 안무법과 그간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Q. 교수님께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지식과 트렌드 그리고, 열정입니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지식은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세상 밖으로 나가서 활용해야 할 트렌트적 아이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꿈을 향해 가는 이들의 열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면..... 더 넓은 세상에서 인성과 배려를 겸비한 훌륭한 플레이어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공하는 것을 물론 바라지만 학생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Q. 본교 실용댄스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A. 꿈이 있으면 함께 꿈을 이뤄나가고, 꿈이 없다면 함께 꿈을 만들어가는 우리는 신안산대학교 실용댄스과 'With Dream' 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노래 잘하나요? 아이큐 높다고 춤 잘 추나요? 잘 노는 것도 타고 나야 합니다. 신안산대학교 실용댄스과에서 예비신입생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놀고, 꿈을 키워나갈 즐거운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신안산대학교에서는 단순히 춤을 잘 추는 춤꾼이 아닌 함께 꿈을 만들어 갈 인재를 키워나가는 곳이기에 춤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자신의 끼를 펼쳐 보세요.

연예매니지먼트과 이수지 교수

이수지 교수는 2008년 SBS 공채 10기 개그맨으로 데뷔하여 웃찾사 등에 출연하다 2012년 KBS 공채 27기 개그맨로 재데뷔했다. 이후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개그콘서트 황해에 출연하여 “돌았나? 네 이래가지고 밥 빌어먹고 살겠니?” 라는 유행어를 유행시키며 2014년 KBS 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2015년 KBS 연예대상에서 코미디 부분 우수상 수상, 2016년 KBS 연예대상에서는 코미디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쿠팡 플레이에서 방영되는 ‘SNL 코리아’에 출연중이다.

연예매니지먼트과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의 일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매니저와 기획사의 사무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 연예계 인재 발굴, 양성, 관리, 스타로 만드는 스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한다. 관련 직업으로는 치프 매니저, 제작 매니저, 홍보 매니저, 공연기획자 등이 있고, 엔터테인먼트회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디어 관련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Q. 본교에 부임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 학교 교정에 몇 차례 들렀는데 교정만큼이나 멋진 학생들을 보고 에너지를 얻어 덩달아 즐거워졌습니다. 수업에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을 보고 학생들에게 그 열정을 다시 배워보고 싶어요.

Q. 이번 학기 담당하시는 과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연예매니지먼트학과를 담당하여 연기 화술을 비롯해 시나리오 작품 분석 등을 배울 거예요.

Q. 교수님께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연예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실습 위주의 전문적이고 생생한 체험과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 위트와 개그를 생활에 익숙하게 전수해 주고 싶어요.

Q. 본교 연예매니지먼트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A. 언니 누나처럼 소통하며 지내고 싶어요. 즐겁고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모두 친하게 지내요.



▲출처: 신안산대학교 입학홍보처 제공

공연음악과 김원준 교수

데뷔곡 ‘모두 잠든 후에’로 가요계에 혜성같이 나타난 꽃미남 가수 김원준 교수는 1994년 영상음반대상 골든디스크 본상, MBC 10대 가수상, KBS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1995년에는 드라마와 영화를 찍으면서 배우로 영역을 넓혀나갔다. 2012년도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가수 ‘윤빈’ 역으로, 2013년도에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연예인’으로 특별출연하기도 했었다. 김원준 교수는 300곡이 넘는 자작곡을 보유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로, 신안산대학교의 공연음악과의 새로운 전임 교수로서의 활동이 기대된다.

공연음악과는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는 전공 레슨과 실용음악 기초부터 심화과정의 체계적인 커리큘럼, 창의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글로벌 공연예술 산업 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 개개인의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 분석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공연문화에 적합한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뮤지션 양성을 목표로 한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 등이 있으며, 전문 연주자, 가수,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 공연기획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Q. 본교에 부임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 감사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요. 부족하지만 신안산대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학기 담당하시는 과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곡도 쓰고 노래도 하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전공 실기 교과목을 맡고 있어요.

전공실기 안에서도 송라이팅과 홈 리코딩 수업인데요, 곡을 만들고 녹음하는 과정들을 전공실기 이론과 실습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1인 프로듀서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로써 직접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맡고 있는 교과목 수업의 특징이자 장점인 거 같아요! 물론 음원 발매 및 유통 관련 업무까지 수업 외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수업을 통해 배운다기보다 꼭 느꼈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음악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같은 거죠! 그 안에는 긴장과 이완이라는 미묘한 연결고리들이 그 음악이란 언어를 촘촘히 가득 채우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법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 음악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스토리 텔러 같은 거죠! “내가 만든 음악 좋지?” 라기 보다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뭘지 알아?” 가 제가 전공자들에게 바라는 그 음악을 만드는 초심이자 시작인 거 같아요!

Q. 본교 공연음악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A. 17년 가까이 강의를 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대학이란 가치와 존재가 많이 바뀌고 또 급변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만큼 음악 하는데 이유가 많아지고 또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시대가 쉽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튜토리얼 콘텐츠도 많아지고, 대학이란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학은 전공자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학위를 통해 말해주고 또한 그게 사회 나가서 경쟁력과 장점이 될 거라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건 학우들과 선후배가 생긴다는 거죠! 음악은 혼자 할 수



▲출처: 신안산대학교 입학홍보처 제공

는 있지만 혼자 잘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좋은 선후배 동기들이 좋은 앙상블과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해 주며 서로 이끌어 주고 또 서로 힘이 되어주기도 하죠! 대학의 학번은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 먼 훗날 보면 마치 훈장처럼 가슴에 새겨지는 거 같아요. 저도 91학번이라는 훈장을 달고 그 동기들과 함께 도와가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습기자 전효빈, 이정민, 민성연

미국의 반독점 물결



▲ pixabay

2021년 6월 미국에서 반독점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다. Big Tech라고 불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저격하는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기업들은 2021년 7월 상장 기업 시가 총액 중 무려 14.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기준 미국 GDP 대비 약 28%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어떠한 내용일까? 몇 개를 알아보면 먼저 첫 번째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고 타사에 불이익을 주는 식의 차별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검색 결과 자기네 상품에 유리하게 왜곡하는 행위 같은 것이다. 두 번째 플랫폼이 이해 상충을 일으킬만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서 '이해 상충'이란 이익과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이해 상충'이라고 하는데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자사가 상품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다른 경쟁사들을 인수하려면 시장을 더 장악하려는 게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사실상 인수합병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뜻이다. 네 번째 데이터 독점을 금지한다. 플랫폼 간에 데이터가 이동하도록 요구하여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반독점 규제 법안에 적용되는 기업들의 기준은 어떠한가? 적용 대상은 월간 활성 사용자가 5,000만 명 이상이며 시가 총액 6,0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인데, 현재 이에 해당하는 곳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4 곳뿐이다. 그렇다면 왜? 최근의 논란이 되어 법안이 발의되었을까?

이들 4개 회사가 강력한 플랫폼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끝없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새로운 기업들의 탄생을 막고 있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 공화당 등 양당 의원들은 1년 4개월 전부터 4개의 Big Tech 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사실 매우 오래되었는데 1890년 미국에서 동종업체의 기업연합(카르텔)이나 기업합동(트러스트)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셔먼법(Sherman Act)'이 반독점법의 시작이다. 1914년 반독점 행위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크레이튼법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연방무역위원회 법이 잇따라 발효되었다. 미국은 기업들이 담합하거나 기타 제후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하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에 독점이라는 것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의 법학자이자 현재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인 리나 칸(Lina Khan)인데 그녀가 쓴 논문인 2017년에 쓴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 Antitrust Paradox) 논문이 재조명받고 있다. 반독점법은 말 그대로 독점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즉, 입법부가 대기업들의 횡포를 통제하고 권력을 분배하여 시장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는 약탈적 가격 책정과 수직통합으로 이 Big Tech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1) 첫 번째 약탈적 가격책정은 아마존이 지금의 이익 대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아마존 성장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은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연회비를 79달러를 받으며 무제한 2일 배송을 약속하였고, 이후 지속해서 추가 혜택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아마존이 놀라운 성장을 낳게 한 데 비해 순수익은 그다지 창출하지 못했다. 초기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만으로 아마존은 매년 10억~20억 달러에 가까운 손해를 보았으나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이어갔다.

두 번째 전략은 다양한 비즈니스 라인의 수직통합을 통한 확장이다. 아마존은 여러 라인의 비즈니스를 통합함으로써 인터넷 경제의 핵심적인 인프라로 떠오르게 된다. 아마존의 대상 고객들은 일반 소비자들뿐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과 경쟁하는 다른 소매업자들도 아마존의 배송 시스템을 사용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미디어 회사는 아마존의 온라인 플랫폼 또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상호 간에 이해 상충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자사 제품으로 경쟁사들과 경쟁을 하는 동시에 경쟁사들이 아마존의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나 칸은 2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경쟁을 강화하여서 한 온라인 플랫폼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시장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첫 단계는 손실회복심사를 없애는 것이다. 기업들이 본인이 약탈적 가격 책정을 통해 손해를 본 항목에서만 가격을 인상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아마존과 같이 힘을 축적한 대규모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손실을 메꿀 방법은 무한하기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손실회복심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업들의 합병 심사 강화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큰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잘 알고 합병으로 인해 한 기업이 경쟁사들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 아마존이 경쟁사들과 경쟁하는 동시에 그들이 의존하게 만드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은 이해 상충을 불러일으킴으로 이러한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는 합병이라면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독점 플랫폼들을 인정하는 대신 규제를 통해 기업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규제에는 공공사업규제와 공용사업자(Common Carrier)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고려된다. 공공사업규제는 그동안 철도사업과 전기사업 등 공공 필수 산업의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아마존의 경우 점점 더 인터넷 경제에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공공사업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공사업규제 정책에는 차별이 없는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조약이 있다. 현재 아마존은 수직통합을 통해 너무 큰 힘을 갖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다른 경쟁사들에 금전적 불이익을 주거나 서비스의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사업규제를 통해 아마존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른 경쟁사들을 상대로 불공평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하나는 아마존의 인프라를 필수시설(essential facility)로 강제하여 공용사업자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아마존의 플랫폼이 다른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오픈되고, 공평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나 칸의 주장이 이번 일부 반독점 법안에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반독점 규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있는데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가 반대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또한 비슷한 이슈가 있는데 특히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다. 예로 한 회사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상위에 노출해 과징금이 부여된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독점법과 같이 강력한 규제를 할 시기인가? 미국처럼 큰 기업들이 독보적으로 어느 한쪽을 점령하지 않고 있고 시가 총액 또한 7% 수준이다.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 '기존 공정거래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독점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상근,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 Antitrust Paradox)이 제시하는 플랫폼 규제정책", 2021년 09월 19일,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66

정기자 김경일

새롭게 뒤바뀐 세상, 메타버스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도 대면보다 비대면이 더 익숙해졌다. 사람들은 랜선을 통해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수업을 들으며, 여가생활까지 모두 집에서 즐기는 언택트를 넘어 언택트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언택트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각자 가상의 아바타로 온라인상에서 게임, 쇼핑, 수업 등등 여러 활동을 통해 디지털 공간을 넓혀 나갔으며, 그 결과 우리는 메타버스의 초기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집에서 편하게 재택근무를 하며, 인터넷으로 오늘 저녁으로 먹을 음식을 주문하고, 친구들과 인터넷에서 만나 같이 오락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전후 인터넷 이용시간 및 빈도 변화]



▲ 코로나19 전후 인터넷 이용시간 및 빈도 변화율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Insight)

메타버스가 어째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만든 가상세계를 모두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포켓몬고와 같이 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인 증강현실. 둘째, 개인이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만나고, 느끼는 모든 정보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동으로 기록하여 웹 사이트에 자료를 올릴 수 있는 SNS와 같은 라이프로그. 셋째,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만, 효율성과 확장성을 추가해 복사한 세계인 거울세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배달어플, 지도어플 등 위치기반 서비스. 넷째, 가상의 세계에서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플레이어의 아바타들과 상호작용하는 게임이나 가상현실(VR) 같은 가상세계 등이 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에는 어떤 게

있을까? 여기 실제로 시행된 메타버스의 예시가 있다.

1. 신곡 발표 및 콘서트

메타버스라는 시스템이 화제가 된 데 큰 이바지 한 세계적인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있다. 바로 BTS이다. 지난해 9월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차트에서 1위에 오른 뒤 안무 버전의 새 뮤직비디오를 꽤 의외의 장소에서 공개했다. TV의 음악 전문 프로그램도 아니고, SNS도 아닌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 안에 있는 콘서트장이 발표 무대였다.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는 날 게임을 하던 이용자들은 하던 게임을 잠시 멈추고 콘서트장에 참여해 BTS의 신곡을 들으며 콘서트를 즐겼다.



▲ 메타버스를 통해 신곡을 공개하는 BTS (출처:유튜브)

2. 패션쇼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에서는 구찌뿐만 아니라 나이키, 컨버스, 디즈니, 푸시버튼 등 패션 브랜드들이 잇달아 입점했다. 다양한 브랜드들의 의상은 제페토 내 유료화페인 ‘잼’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만든 아바타에 원하는 브랜드의 옷과 액세서리 등을 입히고, 다른 친구 아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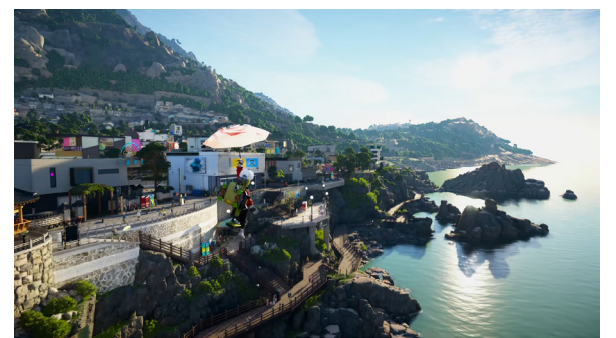
▲ 제페토를 이용하여 패션쇼를 개최한 구찌 (출처:구찌 공식 홈페이지)

타와 소통하게 된다. 구찌 컬렉션들을 골라 입고 피렌체의 구찌 빌라 정원을 거니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3. 게임

지난 8월 유튜브에 한 게임의 트레일러가 올라왔다. 도깨비는 게임사 펠어비스에서 만든 수집형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수집한 도깨비들을 이용하여 전투를 치르는 게임이다. 도깨비는 영상이 업로드된 후 삼시간에 전 세계에서 이목이 쏠렸고,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게임 자체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수많은 게이머가 열광한 것은 고품질의 그래픽이 메타버스로 구현되어 현실감과 생동감을 실제처럼 전달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게임시장의 유입이 늘어난 지금 도깨비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가 더욱 발전되어 모든 직장생



▲도깨비 트레일러 (출처:유튜브)

활이 집 안에서 모두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장소의 자유, 설비의 간략화, 셔틀버스 및 식당 등 사내에 있어서 필수적이지 않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재택근무의 경우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통해 출석하게 되면 인공지능에 의해 모든 근무 과정이 평가되고, 초 단위로 기록되어 이전보다 더욱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가 이루어져 이전보다 높은 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메타버스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아직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기 전에도, 인력계 세대에서 택시 세대로 변화할 때에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은 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세대가 바뀐 뒤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세상이 혼란스럽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휩쓸리지 않고 적응해 원하는 방향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길 바란다.

정기자 최민성



2021 AIoT 국제전시회 소감문

우리의 삶에 녹아 든 인공지능



2016년 3월에 구글 답마인드사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한국 프로 기사인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국이 있었다. 그 당시 모든 현역 프로 바둑기사들이 알파고를 이기지 못했는데, 이세돌 9단이 1승을 얻어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

가 되었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대전을 기준으로 하면 총 74전 73승 1패로 이미 알파고의 바둑 인공지능은 인간을 월등히 뛰어 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인공지능은 답러닝 기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 나간다. 또한 인간보다 습득력이 훨씬 빠르기에 배우는 속도도 훨씬 빠르다.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결국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인류가 지배당하거나 멸망한다는 내용의 비판을 담은 영화나 소설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았을 때 무언가 전문적이고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 들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공지능의 디스토피아적 모습까지 흔히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우리의 생각처럼 전문가들이 사용하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소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인류를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녹아 들어있다.

이번 AIoT 국제전시회에서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 위주로 전시회를 보았다.

누구나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가야할 것이다. 큰 맘 먹고 돈을 들여 머리를 자르거나 염색, 펌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와 어울리지 않아서 실망했던 경험이란 번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 머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미리 보고 잘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미러로이드이다. 거울을 통해 보이는 나의 사진을 찍고 머리의 모양과 색을 바꾸어 펌이나 염색을 한 후의 머리를 미리 볼 수 있는 기계이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정지된 사진의 머리만을 바꾸어 주

기 때문에 움직여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으니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의 머리카락 부분만을 인식하여 실시간으로 시술 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바로 의식주이다. 의식주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우리 삶의 질도 더욱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사진은 IoT를 활용한 캡슐 룸이다. AIoT가 온도 습도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 지금은 캡슐 룸이라는 작은 공간에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만약 아파트를 건축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자. 덥고 습한 여름에는 시원하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실내의 온도를 가장 적절한 온도로 AI가 스스로 맞춰줄 것이다. 이미 출퇴근 시간에 맞춰 에어컨과 보일러를 미리 켜고 끌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니 함께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AIoT 국제전시회를 통해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가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삶도 더욱 윤택하게 바뀌고 있다. 만약 아직도 인공지능이 다가가기 어려운 기술로 느껴진다면 우리의 주변을 한 번 살펴보자. 이미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다. 이를 알게 된다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다가가기 힘든 전문적 단어가 아니라 편한 친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멀티미디어콘텐츠과
최문서



초지동 이슈高 진실

글,그림:강민주



세계로 뻗어가는 신안산대학교-베트남 어학생편



▲ 황 티 뽀영(21)

10월 14일 화창한 가을날, 신안산대 연못가 카페에서 베트남 어학연수생 황 티 뽀영과 황 하이남을 만났다.

Q) 먼저 황 티 뽀영씨에게 여쭙볼게요.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A) 기숙사가 멀어서 힘들어요.

Q) 한국에서 적응하기 힘든 점이 있다면요?

A) 날씨가 춥고 비가 많이 와서 조금 힘들어요. 베트남도 비가 많이 오긴 하는데 한국보다 훨씬 더워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매운 음식이 없지만, 음식을 짜게 먹고 아침도 짜게 먹는데 한국 음식은 싱겁고 달게 먹어서 이 단맛

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Q) 학원에서 한국어 배우는 게 어렵지는 않나요?

A) 한국어 아직 소통하기 힘든 실력이에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라 사회에서 실제 상황에서 대화할 때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직접 대화할 때의 문법과 발음하기가 아직 어려워요.

Q) 한국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A) 3개월 되었어요.

Q) 한국에서 맛있고 가장 입맛에 맞았던 음식이 있나요?

A) 김치, 비빔밥, 김치찌개 좋아해요. 맛있어요. 안 맵고 맛있어요.

Q) 한국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A) 제일 하고 싶은 건 한국 문화 알아가고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도 얼른 공부해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Q) 현재 한국에 살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A) 혼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제가 베트남 떠나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혼자 와서 부모님이라 떨어져서 지내고 혼자 여러 가지 일을 알아서 해야 해서 어려워요. 무슨 문제 있으면 혼자서 해결해야 하니까요. 학교

다녀와서 혼자 무슨 일을 해도 힘든 것 같아요.

Q) 많은 나라 중에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나요?

A)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말도 비교적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Q) 베트남과 한국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면요?

A) 교통수단이 편리해서 좋아요. 그리고 우리 베트남은 한국보다 수업 시간이 빨라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은 6시부터 1교시 시작해요. 한국은 9시에 시작하고요. 베트남에서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오전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요. 그러면 오후 수업은 1시쯤 시작하는데 한국에서는 9시부터 수업하고 12시 반이나 12시 50분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사이에 너무 졸려요.

Q) 베트남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황 티 뽀영입니다. 나이는 21살입니다. 고향은 베트남 하띤입니다. 취미는 음악 듣기이고 좋아하는 한국 노래는 “손 - Way back home” 이예요.

Q)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진로 계획과 꿈이 있다면요?

A) 제 장래 희망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한국어를 잘 배워서 메이크업 전공으로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싶고, 한국에서 메이크업 관련 직장을 다니고 싶어요.



▲ 황 하이남(19)

Q) 황 하이남씨에게 질문드릴게요. 한국에 와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A) 학교 기숙사가 멀어서 힘들고 한국 날씨가 너무 추워요.

Q) 한국에서 계속 머물 건가요?

A) 아직은 모르지만, 한국어 과정이 2년이에요. 한국어 과정 2년 배우고 저희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으면 오래 한국에서 머물 수 있어요.

Q) 한국에서 진학하고 싶은 학과가 있나요?

A) 한국어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Q) 한국말로 대화하는 게 어렵진 않은지?

A) 한국말로 대화하는 거 어려워요. 대화할 때 발음하는 것, 말하기가 어려워요. 쓰거나 듣기는 좀 괜찮은데 한국어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시지만, 한국어에서 어휘랑 문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Q) 한국에 와서 제일 맛있고 가장 입에 맞았던 음식이 있다면요?

A) 김치가 맛있어요. 안 맵워요.

Q) 한국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A)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알고 싶고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Q) 많은 나라 중에 한국에 와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한국어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Q) 한국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 하이남입니다. 올해 저는 열아홉 살입니다. 제 고향은 베트남 광빈입니다. 제 취미는 축구하는 것입니다. 제 꿈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예요.

Q) 한국어 선생님, 정말 멋진 꿈이네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는데 그전에는 한국어 공부를 안 했나요?

A) 저는 한국에 온 지 3개월 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베트남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4개월 정도 배웠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지 다 합치면 7개월 정도 되었어요.

Q) 한국어 공부하는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네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가 있나요?

A) 베트남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을 정말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Q) 한국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나 K-Pop, 가수, 연예인이 있나요?

A) 한국 가수는 모모랜드의 낸시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는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본 드라마는 배우 송중기가 출연하는 태양의 후예를 재미있게 봤어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진로 계획이 있나요?

A) 앞으로 한국어 공부 열심히 배워서 베트남 돌아가서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1년 동안 한국어 공부를 한 후에 전공을 공부할 거예요. 이 1년 동안 한국어 공부 후에 한국에서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어요.

정기자 김경일 수습기자 전예원, 강민주



▲ 황 티 뽀영, 황 하이남, 그리고 도움 주신 원 마이 타오 선생

커리어라운지

우리 학교 도서관 3층에는 커리어라운지가 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은 오다 가며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신안산대학교 학생이라면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뜻 이용하기가 꺼려진다. 이 때문에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학보사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며, 학생 취업처 취창업진로팀의 황선중 팀장님과 커리어라운지 내에 있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시는 굿잡 상담사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 커리어라운지 (도서관 3층) ▲ 커리어라운지 내부

최민성 기자 : 우리 학교 도서관에 이러한 곳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황선중 팀장님 : 신안산대학교 커리어라운지와 국민취업지원팀 모두 도서관 3층에 있으며, 취업 고민을 함께해주는 취업지원관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은 취업준비생들의 역량을 분석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업무 이외에도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구직활동을 함께 해주며 신안산대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배치된 컴퓨터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및 각종 구직정보를 탐색해 볼 수 있으며, 입사 지원 관련 서류를 USB에 담아 갈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학생들이 MBTI, 에니어그램, 행동 유형 검사인 디스크, TA교류분석, 프레지더 작업 흥미 카드를 활용한 직업 흥미 적성검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굿잡 상담사님 : 고용노동부에서 학교랑 협약을 맺고 이곳에 상주하면서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커리어라운지와 달리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력서, 면접, 기업분석, 알선 등 취업 지원제공을 해주는 것까지는 커리어라운지와 같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구직촉진 수당이라는 취업 활동 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최민성 기자 : 취업 활동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굿잡 상담사님 : 심사를 거쳐서 1유형,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은 구직촉진 수당,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드려서 쉽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 활동비용도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유형일 경우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훈련비 지원 이외에 훈련장려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큰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커리어라운지와 국민취업지원팀이 하는 일과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커리어라운지에서는 전화로도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부담 없이 전화를 달라고 하였다. (031-490-9051 : 커리어라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학교 도서관 3층에 있는 국민취업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상담을 진행한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절차는 2022년 2월에 졸

업 예정인 학생들만 가능하다고 한다. 2022년 8월에 졸업 예정인 학생들은 올해 11월 1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졸업과 동시에 현역으로 입대를 앞둔 남학생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긴 하나 추천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된다면 3년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제대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만 18세부터 6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졸업자도 가능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참여할 수 없다.

최민성 기자 : 커리어라운지에는 온라인강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황선중 팀장님 : 유튜브에 ‘불꽃취업TV’ 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을 하는데, 입사지원서 작성법 및 면접 요령에 대한 영상을 탑재하였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구글 클래스를 이용한 특강도 있을 예정이니 유튜브 구독 및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민성 기자 : 나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황선중 팀장님 :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커리어넷 등을 통해 구직 사이트를 활용한 직업 적성, 적합성 검사를 이용하면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 커리어라운지 내에서도 직업, 흥미 적성검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탐색해 드리고 있으니 커리어라운지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고, 적합성 검사도 같이 받으시며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성 기자 : 학생에게 맞는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황선중 팀장님 :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신안산대학교 학생이라면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가면이 어떤 가면인지 재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기업이 요구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가면을 썼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가면을 썼는지, 그 가면을 절대로 벗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갖춰야 할 필살기 중의 하나입니다만, 잘못 하면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면 속에 갇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도서관 3층에 있는 커리어라운지에 방문해서 MBTI, 에니어그램, 행동유형 검사인 디스크 등을 통해서 가면 속에 들어있는 자아를 찾아냈으면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일정 부분은 후천적 교육으로 얻어진 것이지만 상당한 부분은 타고난 성격의 자연스러운 표출이기 때문에 사람은 대부분 상황에서 가장 편안한 길을 찾아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성격유형 검사나 행동유형 검사를 하면 가면 속에 숨 쉬고 있는 자아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알라.’ 라는 오랜 격언을 몸소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민성 기자 : 자격증이 없고 스펙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취업할 수 있는가요?

황선중 팀장님 : 취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문의하는 청년 구직자들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의 질문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학점은 3점대에 자격증은 없으며, 봉사활동은 단 몇 시간뿐입니다.’ 라는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스펙은 구직활동에 있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점, 어학,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 경험 등이 스펙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취업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린다는 겁니다.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원하는 인재는 완벽한 스펙 관리를 위해 대학 시절을 온통 스펙 쌓기로 물들인 취업준비생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꺼리는 지원자 중 하나라는 사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펙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까지 일까요? 쉽게 말해 좋은 스펙은 면접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최종 합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펙이 좋으면 서류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토익성적 800점과 900점의 차이, 또는 학점 3.4와 3.8의 차이가 최종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커리어라운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어오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도서관 3층에 커리어라운지라는 신안산대학교 취창업진로팀이 있고, 커리어라운지 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계신다. 커리어라운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며, 행동유형 검사, 흥미 적성 검사, 에니어그램 등을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해 굉장한 도움을 주는 곳이다.



▲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디에 취업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자신이 어느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찾고 싶은 학생 및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학생 모두 이곳을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 커리어라운지팀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우리 회사만을 위한 행위를 한 게 있다면 말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만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기업을 사랑해야 한다. 누군가와 데이트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나를 꾸미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취업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준비해야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기술의 핵심은 ‘직무와 관련 있는 역량’ 이 담긴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다.

—커리어라운지 김용원 상담사

정기자 최민성, 정기자 임재희

Our New Norm, “With Corona”

교양과 엄혁 교수

Soon, Korea will be switching to a society living with Corona rather than suppressing it. What does that mean? Yes, we will be living as if we were in 2019. Everything is going back to normal, except we will still be wearing a mask, washing our hands, and keeping all the new habits we learned from the last two years. This is our new society, where the Corona virus will be treated as an influenza virus rather than an infectious respiratory disease. Thus, when we get our flu shot, we will probably also get the Coronavirus booster shot to increase our tolerance against the virus.

“With Corona, ” there will be no massive quarantine and infection tracing. Infected patients will most likely stay and recover at home since symptoms are mostly mild. No more hospital stay. Most importantly, Korea will be off the social distancing plan. Which means, university students will be able to live and experience life as a university student. Moreover, in 2022, we will be returning to a regular university schedule: in class lectures, university programs, and student gatherings. However, this plan, “With Corona”, will all depend on the vaccination rate of the Korean population.

By the end of October, it is projected that 70% of the Korean population will be vaccinated. This number is assumed sufficient to begin herd immunity. Herd immunity is the idea that enough vaccinated people should be able to shield the vulnerable people in society from infected people and slow the rate of infection. The higher the number of vaccinated people, the more effective herd immunity becomes. A great example of this is the measles virus. The vaccine was first introduced in 1963. Since this virus is highly infectious (much higher than COVID-19), the assumed rate of 95% of the population being vaccinated would be sufficient for herd immunity to be effective and in 2000, the measles virus was declared eradicated in the United States. Some outbreaks after 2000 were from international travelers. However, with misinformation and irrational arguments convincing people that vaccination is dangerous, this group of people are spreading false fears amongst the innocent population to believe in anti-vaccination. This has caused the reemergence of the measles outbreak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It is this group of misinformed anti-vaccine believers that will deter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of successfully implementing herd immunity for COVID-19. This is why the governments should only allow vaccinated people to travel in and out of the country, implement the vaccine passport within the country, and limit the mobility and freedom of unvaccinated people to increase herd immunity. Why? 70% of the population being vaccinated is not enough, 95% is a safer choice for seniors, adults, teenagers, and especially our children. Over time, 95% of the population will become vaccinated and COVID-19 will be part of our history books, in a chapter called “The Virus Epidemic of 2019.” Our children will learn about this time in history, and we will be a living reference for their school projects and essays.

Even though we are trying to go back to 2019, 2022 will be a mixture of our past freedom, present inconveniences, and our new future normal. Wearing our masks, washing our hands, and fist bumping will define our new future with our personal freedom. What exactly our new normal will define on how our society eradicates, eliminates or manages to live with this virus.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change our society to be better after this pandemic.

Just a quick note. For those students who are getting their second vaccine shot, here is some helpful advice to make the healing smoother. The vaccine affects everyone differently so my advice may or may not help. First, 5 or 10 minutes before getting your shot eat two portions of vitamin C and drink it down with a sports drink. After getting the shot, sleep at least 3 to 5 hours. After waking up, if you have any signs of a headache or body pains, take some Tylenol and rest. Make sure you stay hydrated. The next day, you should feel normal. If you do decide to go out, always have some Tylenol and take it with any signs of pain. On the third day, everything should be back to normal. However, if Tylenol does not help and you have a fever or heart pain, go see your doctor. If you take my advice or not, I want to thank you for getting your vaccine shot, now we will be one person closer to make herd immunity more effective.

우리의 새로운 기준, “With Corona”

번역 강은정

머지않아 한국은 코로나를 억압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 일까요? 네, 우리는 2019년처럼 살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지난 2년 동안 배운 모든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아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취급되는 우리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따라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때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예방 주사도 맞을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 대규모 검역과 감염 추적은 없을 것입니다. 감염된 환자는 증상이 대부분 경미하기 때문에 집에 머물고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더 이상 입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대학생은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강의, 대학 프로그램, 학생 모임 등 정규 대학 일정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위드 코로나” 계획은 모두 한국인의 예방 접종률에 달려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예방접종을 받을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이 숫자는 집단 면역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측이 됩니다. 집단면역은 충분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회의 취약한 사람들을 감염자로부터 보호하고 감염 속도를 늦출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백신 접종 인원이 많을수록 집단 면역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홍역 바이러스입니다. 백신은 196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COVID-19보다 훨씬 높음) 95%의 예방 접종을 받은 인구 추정 비율은 집단 면역에 충분하였고, 2000년에 홍역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근절되었음이 선언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일부 발병은 해외 여행자로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와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이 위험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면서 이 그룹의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 사이에서 백신 접종 반대를 믿도록 잘못된 두려움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홍역 발병이 다시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COVID-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저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가진 백신 반대 신자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집단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국외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백신 여권을 국내에서 시행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이동성과 자유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방 접종을 받는 인구의 70%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95%는 노인, 성인, 십대, 특히 어린이에게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의 95%가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이며 COVID-19는 “2019년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한 단락 속에서, 우리 역사 책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역사상 이 시기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학교 프로젝트와 에세이를 위한 살아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2019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2022년은 과거의 자유와 현재의 불편함,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정상화가 뒤섞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주먹인사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바이러스를 근절, 제거하거나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우리의 새로운 정상화가 정확히 무엇을 정의할 것입니까? 이것은 팬데믹(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후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간단한 메모입니다. 두 번째 백신 주사를 맞는 학생들을 위해 치유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백신은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므로 제 조언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주사를 맞기 5~10분 전에 비타민 C를 2회 섭취하고 스포츠 음료와 함께 마십니다. 접종 후 최소 3~5시간은 취침하세요. 기상 후 두통이나 몸살의 징후가 있으면 타이레놀을 먹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수분을 유지하십시오. 다음날에는 정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외출하기로 결정했다면 항상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통증의 징후가 있으면 복용하십시오. 셋째 날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타이레놀이 도움이 되지 않고 열이나 심장 통증이 있는 경우 의사를 만나십시오. 제 충고를 받든 안 받든 백신 접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집단면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에 한 명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수시 2차					
원서접수	제출서류마감	면접·실기고사	합격자발표	등록기간	충원합격발표 및 등록기간
2021.11.08(월) ~ 2021.11.22(월)	2021.11.24(수)까지	2021.12.03(금)	2021.12.10(금)	2021.12.17(금) ~ 2021.12.20(월)	2021.12.29(수) 21:00 까지
전형구분		학과	학생부(교과)	분야평가	
수시	일반전형	교과위주	전체학과 (실기위주학과 제외)	100	
		실기위주	스포츠지도과, 실용댄스과, 공연음악과	30	70(실기)
	특별전형	자기추천자	해당학과	30	70(면접)
		자격증소지자		30	70(서류)
		체육특기자		30	70(서류)
		지역우선자		100	
		교과위주			
정원외	농·어촌/기초차상위/특성화고졸재직자	교과위주	해당학과	100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서류위주	해당학과		100[전적 대학(교) 성적 백분위]
	외국인	서류위주	해당학과		100(서류)
· 학생부(교과) : 1-1학기 ~ 3-1학기 중 최우수 1개학기의 전과목 교과성적 평균등급					

구분	지원자격	추가제출서류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고, 검정고시 출신자 등) 구분없이 지원 가능	· 없음.
자기추천자	· 모집학과에 대한 뚜렷한 학습의지와 진로에 대한 확신 이 있는 자 · 전공적성 문항은 ‘입학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없음.
자격증 소지자	· 법령에 의한 국가전문자격증 (기능사, 국가공인민간자격 이상)소지자 단, 민간자격증은 공인을 받은 시단법인급 이상의 민간자격증 2급(B급) 이상 취득자 · 자격증현황(배정산점표)은 ‘입학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자격증복사본 또는 취득내역(사항)확인서 반드시 제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어도 제출) · 인터넛접수자 중 자격증 사본 업로드 시 별도 제출하지 않음
지역우선자	· 안산, 인천, 부천, 수원, 시흥, 안양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없음.
농·어촌 출신자	· (유형 I) 농·어촌(읍·면 단위)에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 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 하는 졸업(예정)자 · (유형 II) 농·어촌(읍·면 단위)에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 하는 졸업(예정)자 - 농·어촌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교,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 - 경과조치 : 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가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인정함. -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지역은 ‘입학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지원자격 확인서(입학홈페이지 참조) · (유형 I)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 (유형 II)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원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기초 차상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자 및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으로 지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소년·소년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자 포함.)를 포함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급여 수급,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증명서류 · 원서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특성화고졸 재직자	· 특성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포함) 졸업자 중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 산업체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예정)한 자 · 외국대학 출신자는 지원 불가	· 대학(2년이상) 졸업(수료)증명서 ·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취득학점과 평점평균 및 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재)

※정원의 전형은 수시1·2차에 선발하며, 지원 및 등록결과에 따라 정시모집에 추가모집 함. 단, 학과별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정원의 외국인전형은 입학홈페이지 참조(031-490-6511)

정시

원서접수	제출서류마감	면접 · 실기고사	합격자발표	등록기간	충원합격발표 및 등록기간
2021.12.30(목) ~ 2022.01.12(수)	2022.01.14(금)까지	2022.01.21(금)	2022.01.28(금)	2022.02.09(수) 2022.02.11(금)	2022.02.12(토) 2022.02.28(월)

전형구분				학과	학생부(교과)	수능	분야평가
정시	일반전형	복합	실기위주	스포츠지도과, 실용댄스과, 공연음악과	30		70(실기)
		수능	수능위주	전체학과 (실기위주학과 제외)		100	
		교과	교과위주	수시미충원학과	100		
자율모집	일반전형		교과위주	자율모집학과	100		
	농 · 어촌출신자/기초차상위/특성화고졸재직자		교과위주	해당학과	100		
정원외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서류위주	해당학과			100 [전적 대학(교)성적 백분위]
	외국인		서류위주	해당학과			100(서류)

· 학생부(교과) : 1-1학기 ~ 3-1학기 중 최우수 1개학기의 전과목 교과성적 평균등급

· 수능 : 국어, 수학, 영어(백분위환산반영)영역 중 최우수 1개 영역
+ 한국사(백분위환산반영), 과 · 사 · 직탐 중 최우수 1개 과목 백분위 평균

구분	지원자격	추가제출서류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고등학교(일반고, 특성화고, 검정고시 출신자 등) 구분없이 지원 가능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수능전형만 해당)	· 없음.
농·어촌 출신자	· (유형 I) 농·어촌(읍·면 단위)에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 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 하는 졸업(예정)자 · (유형 II) 농·어촌(읍·면 단위)에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 하는 졸업(예정)자 - 농·어촌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교,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 - 경과조치 : 고등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가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인정함. -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지역은 ‘입학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지원자격 확인서(입학홈페이지 참조) · (유형 I)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 (유형 II)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원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기초 차상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자 및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으로 지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소년·소년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자 포함.)를 포함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급여 수급,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증명서류 · 원서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특성화고졸 재직자	· 특성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포함) 졸업자 중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 산업체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예정)한 자 · 외국대학 출신자는 지원 불가	· 대학(2년이상) 졸업(수료)증명서 ·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취득학점과 평점평균 및 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재)

※정원의 전형은 수시1·2차에 선발하며, 지원 및 등록결과에 따라 정시모집에 추가모집 함. 단, 학과별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정원의 외국인전형은 입학홈페이지 참조(031-490-6511)

수시1·2차 등록자 전원 **100만원**, 지급확정!!!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림: 신안산대학교 웹툰출판미디어과 박영민

2022학년도 **신안산대학교**는

1.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I·II유형 지원 가능**대학입니다.

2. **학자금 대출 가능**대학입니다.



신안산대 입학처 문의



<http://apply.sau.ac.kr/>
031-490-6511~14